



## 우즈베키스탄

### I. 일반개황

면적	44.7만 Km <sup>2</sup>	G D P	87억 달러(2003년)
인구	26백만 명(2003년)	1 인 당 GDP	338달러(2003년)
정치체제	대통령중심제	통화단위	Sum(숨)
대외정책	친서방, CIS 결속, 친러강화	환율(달러당)	979.0(2003년 말)

-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원면생산과 수출이 세계적이며, 금 등 일부 광물자원 및 원유·가스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개발 잠재력이 있음.
- 구소연방으로부터 독립한 CIS국가 중 시장경제 이행 초기에 다른 CIS 국가 보다 경제충격을 완화하는 데 성공하며, 에너지 자급자족 및 중앙아시아 내 최대 인구를 바탕으로 1997년 이전까지 활발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며 경제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성공하는 듯 했으나, 이후 카리모프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따른 실정과 정치·경제개혁 부진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감소 등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.
- 현 카리모프 정권의 장기통치와 인권탄압, 언론탄압, 야당부재 등 비민주적 정치시스템과 경제개혁 실패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침체 및 테러 발생으로 사회적으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.

### II. 경제동향

#### 1. 국내경제 동향

- 경제성장률: 금년 봄 기후불순으로 면화작황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원면 국

<표 1>

주요 국내경제지표

단위: %

구	분	2000	2001	2002	2003 <sup>e</sup>	2004 <sup>f</sup>
경 제 성 장 률		3.3	4.1	3.2	0.3	3.0
재 정 수 지 / G D P		-4.1	-1.0	-0.8	-0.4	-1.0
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		24.9	27.2	24.2	13.1	5.0

자료: EIU, Country Report.

제가격의 상승세로 인해 2004년에는 3% 수준의 실질성장이 예상됨. 한편 곡물은 예년보다 작황이 호전될 것으로 보임.

- 물가: 정부는 숨화 유동성 억제 등 통화긴축정책으로 물가상승을 억제하려고 노력. 2002년 하반기의 신 수입관세 도입후 수입관세 부담 증가, 국내 소비재·식료품 부족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은 2003년 13.1%, 2004년에는 보다 낮아진 5% 전망. 재정수지 적자의 대 GDP 비율은 0.9%로 소폭 증가하였음.
- 재정수지: 2004년 9월 총선거를 앞두고 공공부문 임금의 대폭 인상, 사회복지부문의 지출확대 등 재정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, 고유가로 인한 석유부문의 세수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1%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.

## 2. 경제구조

- 취약한 경제구조: 농업이 GDP의 약 40%를 차지하며, 원면(42%), 금(10%) 등 1차산품의 상품수출이 70%를 점유하는 등 주력 수출상품의 외환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. 원면·금 등의 국제시세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경제구조임.
  - 원면의 경우 세계 5위 생산국, 2위 수출국으로, 수출 대금은 주로 부실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과 국민들의 기본 사회 보장망 유지에 충당되므로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재원은 절대 부족 상태임.
- 1996년 이후 외환 및 무역자유화 조치 후퇴, 다중 환율제도 도입, 수입 대체산업정책 유지 등 정부 보조금 증가와 정부 통제 강화로 경제 시스템 왜곡 현상이 발생하였고, 이에 따라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부진한 상태이며 외국인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GDP의 1% 이하에 그침.

### 3. 경제정책

-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추진: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구소 연방 붕괴 이후 국유자산의 민영화, 대외무역 자유화 등 시장경제제도 정착에 주력하고 있으나, 후진적인 정치시스템으로 인해 정부의 경제구조 개혁은 번번이 실패하고 있음.
- 경제구조 다변화 추구: 원면 및 석유·가스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구조를 탈피하여 고부가가치 완제품 생산·수출, 수입대체산업 육성 등을 통한 제조업 육성을 통한 경제구조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음.

### 4. 대외거래 동향

〈표 2〉

주요 국제경제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	분	2000	2001	2002	2003 <sup>o</sup>	2004 <sup>f</sup>
경 상 수 지		126	-105	219	651	182
경 상 수 지 / G D P		0.5	-0.5	2.3	7.5	2.0
상 품 수 지		494	276	324	520	500
수 출		2,935	2,755	2,510	3,128	3,500
수 입		2,441	2,479	2,186	2,367	2,950
외 환 보 유 고		600	781	640	595	-
총 외 채 잔 액		4,340	4,600	4,600	4,500	4,400
총 외 채 잔 액 / G D P		32.1	41.7	44.3	48.9	-
D. S. R.		24.5	24.5	32.7	29.0	-

자료: IFS, GDF, EIU.

-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 전망: 상품수지는 정부의 강력한 수입통제정책, 외환규제 등에 힘입어 흑자기조 유지.
  - 2003년 기후불순에 따른 면화 작황부진에도 불구하고 원면, 금 등 주요 수출품목의 국제가격 강세로 상품수지 흑자폭은 약 5.2억 달러를 기록, 2004년에는 이와 비슷한 수준인 5억 달러 전망.
  -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외채이자 지급 부담으로 2001년까지는 적자 기조였으나, 이후 수입통제정책 등으로 흑자기조로 돌아서 2003년에는 6.5억 달러의 흑자 기록, 2004년에는 다소 감소한 1.8억 달러가 전망됨.

- 외환규제 및 개혁부진 등으로 외국인투자 부진 지속: 구소련권 국가중 외국인투자가 가장 부진한 국가 중 하나로 외환규제 및 개혁부진 등으로 인해 1997년 이후 감소세에 있으며, 2001년 말 현재 인구 1인당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37달러로 CIS국가중 타지키스탄(1인당 22달러)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낮은 수준임.
-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992~2000년중 외국인직접투자 누적액이 80억 달러로 발표하였으나, IMF는 7억 달러 수준, EIU는 9억 달러 수준으로 집계.
- 외환부족 및 까다로운 외환관리제도: 경화수입의 50% 중앙집중 의무화 및 집중시 과대평가된 숄화환율 적용, 숄화의 태환성 비보장 등 환전과 관련한 불이익 및 규제 상존, 이윤송금 제한.
- 2004년 6월 들어 우즈대우차(태환 1순위)의 태환 지연, 갑을방적에 대한 우즈벡 정부의 원자재 구입 달러채무 조기상환 독촉 및 NBU(우즈벡대외경제은행)의 일부 외채 지연상환(기일경과후 상환) 등 외환 부족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난 것으로 알려짐.
- 우즈베크인들은 국내 달러 구매가 어려워짐에 따라 숄화를 카자흐스탄 등으로 반출, 달러로 환전하는 사례가 많음.
- 환리스크: 근본적인 외환부족에다 2004년 초 새로운 외환규제 도입 조치 등으로 암시장환율의 출현이 당연시되었으나 임금·연금 지급 지연 등을 통한 극단적인 숄화유통량 축소, 무역통제 등 경화수요 억제 등으로 환율단일화 유지.
- 물가상승률에 연동된 소폭의 숄화 환율인상이 진행중이나, 정부가 숄화환율의 현실화를 위해 환율인상을 허용할 경우 시중 달러유통은 더욱 축소되어 환율인상 가속화 가능.
- 외환보유고: 2003년 말 현재 약 5.95억 달러 규모로 월평균 수입의 2.2개월분에 불과함.

### Ⅲ. 정치·사회 동향

#### 1. 카리모프 대통령의 장기 통치 지속

- 카리모프 대통령의 강권통치 지속: 2002년 1월 국민투표로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 후 1인 독재가 지속되고 있으며, 인권 및 언론 탄압, 법적 야당 부재 등 정치적 민주화의 진행 속도는 매우 부진한 상태임.

-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위해 소수 정치 엘리트 그룹 및 지방 토후 세력들의 이권을 보장해주면서 기득권 세력과 협력관계 유지.
- 2004년 12월 총선을 앞두고 카리모프 대통령은 국회의 총리 선출, 다당제 도입 등 일련의 가시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서방측은 여전히 개혁의지에 회의적인 입장임.

## 2. 대외관계는 친러·친중관계 강화

- 러시아와 전략적 파트너십 등 친러 강화: 구소 연방 붕괴이후 친서방, 친미 정책으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소원했으나, 2004년 테러사태 이후 6월에 러시아와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(우즈벡 내 러시아 공군기지 배치 등) 체결, 테러대응 협력체계 강화 등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, 경제적으로도 러시아의 석유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등 친러정책을 강화하고 있음.
- 친중정책 강화: 카리모프 대통령은 2004년 6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SCO(상하이협력기구)에서 중국 후진타오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테러공조 및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.
- 대미관계 다소 소원: 9·11 테러사건 이후 경제개혁 재원조달 필요성, 지역 안보문제 등을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미국에 대해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등 친미정책에도 불구하고, 인권 탄압 지속 및 정치·경제 개혁 부진의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당초 기대한 이상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, 개혁에 대한 압력도 계속 받고 있음.
- 미국 정부는 인권 및 경제개혁 개선 부진 이유로 2003년 배정한 우즈벡 원조 자금 5,500만 달러 중 1,800만 달러 삭감.

## 3. 장기 경기침체 및 테러발생으로 사회 불안요인 가중

- 2004년 3~4월 테러사건에 이은 7월 말 자살폭탄테러(미대사관 및 이스라엘 대사관 공격)는 정부의 이슬람 테러단체 개입 발표에도 불구하고, 서방측은 정부의 계속되는 정치적 탄압과 실정, 경찰·관료들의 부정부패,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한 생활고 심화 등에 따른 반정부세력의 행위로 보고 있음.
- 민생고 가중으로 인한 기층민의 소요발생 가능성 및 추가 테러 가능성 등으로 사회분위기가 불안하나, 현 정부는 서방의 정치자유화 압력에도 불구하고 테러사건을 정치적 탄압을 위한 명분으로 이용하며 국제 NGO의 활동 제한, 언론통제 강화 등 강권통치

---

를 지속하고 있음.

## IV.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

### 1. 국제신인도 및 ECA 지원 태도

- S&P, Moody's: 신용등급 없음.
- 주요 ECA 지원 태도: US Eximbank(장기 공공부문 인수 중지), 네덜란드 Atradius(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인수 가능, 재량한도 없음), 영국 ECGD(단기인수 가능, 중기인수는 제한적 인수).

### 2.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등급

- o OECD : 7등급(2002. 1) → 7등급(2003. 1)
- o I.I. : 113/151(2003. 3) → 118/172(2004. 3)
- o Euromoney : 120/185(2003. 9) → 138/185(2004. 3)

### 3. 국제금융기관의 평가

- IMF는 우즈벡 개혁진전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: 2002년 1월부터 환율·외환·무역제도, 은행제도, 원면·곡물수매제도 개선 등에 관한 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IMF의 Staff-Monitored Programme(SMP)을 이행 중. 그 중 핵심사항인 자유로운 환전보장 등 외환자유화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성과는 미흡함.
  - 2004년 3월 IMF와의 연례협의를 IMF는 우즈벡 정부의 개혁의지 및 개혁이행성과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으며, IMF의 최종적인 공식 입장과 금융지원 재개 등의 결정은 11월 초로 예정.
- EBRD는 2005년 초 지원방침 재수립 예정: EBRD는 우즈베키스탄의 민주화 부진, 인권탄압 등 개혁부진에 대한 조치로 공공분야 차관지원 동결조치를 취한 이후 EBRD의 대 우즈벡 지원은 중소기업 지원,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 주로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 지원에 한정되며, 향후 EBRD는 정치 및 경제 부문의 개혁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2005년 초 우즈벡에 대한 새로운 지원전략에 반영한다는 계획임.

- 민간부문 지원은 향후 투자환경 개선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임(투명성과 정부의 개입이 초점).
  - 공공부문 지원은 수자원 관리 및 난방 등과 같이 국민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국내 프로젝트와 중앙아시아 역내협력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로 한정할 예정.
- ADB는 비교적 탄력적이며 유연한 입장: 2000년부터 국가지원전략을 채택, 도로, 철도 등 운송 인프라, 교육, 농업, 금융부문, 도시사회 인프라 등 2002년 말 현재까지 15개 프로젝트에 6억 9,550만 달러 지원.

#### 4. 외채상환 태도

- 외채상환 대체로 악화: 2003년 말 현재 총 외채잔액은 45억 달러로 GDP의 약 49% 수준으로 증가하고, D.S.R은 29%에 달하는 등 외채상황은 대체적으로 악화되고 있음.
- 우즈벡 정부가 외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어 IMF의 지원재개 협상 전제조건이 되는 SMP(Staff-Monitored Programme)의 핵심조건인 외환자유화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성과 등 프로그램의 이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.

### V. 종합의견

- 우즈베키스탄은 약 2,6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중앙아시아 중심국으로서 석유, 천연가스, 금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, 카리모프 대통령 등 집권층의 장기집권에 따른 후진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치체제와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한 사회불안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.
- 우즈벡 정부는 2004년 상반기 들어 외환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환전 제한 등 외환관리 강화 및 수입억제정책 등으로 외환부족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 등 경제상황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음.
- 향후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카리모프 대통령의 인권탄압 중지, 언론자유화, 실질적 야당세력의 형성 등 정치개혁 성공 여부와 외환 자유화, 공기업 민영화, 부정부패 철폐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함.

【차 실】